

## 2020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의료해외진출단  
정혜원, 박상현, 홍지훈, 홍현정

###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 진출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향후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16.6.23 이후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의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되어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함

#### < 의료 해외진출 신고범위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 다.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라.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마.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 바.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 이전
  - 사.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 아.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
  - 자.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 건으로 신고 접수되어 '20년 12월까지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총 91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현황분석 조사를 실시함
  - '16년에는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10건, '17년 14건, '18년 20건, '19년 22건, '20년 25건의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이 발급됨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됨
  - 기존에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진출 사실이 확인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고제 이후 의료 해외진출 증빙자료(현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받음으로써 의료 해외진출 사업수행 관련 정부 차원의 현황분석이 가능해짐

###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개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23 시행)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대상자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 신고의무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일('16.6.23) 이후에 진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법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시 제재
  - 해외진출 미신고시 법 제22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 제2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7년도부터는 온라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www.khidi.or.kr/kohe) 운영을 통하여 보다 편리한 기관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가능해졌으나, 관련 서류 구비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고 대상 기관들이 정해진 기간 내 자진 신고 접수(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제 홍보 확대가 필요함
  -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는 신고자(의료기관 개설자)의 제출 서류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의료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자료 증빙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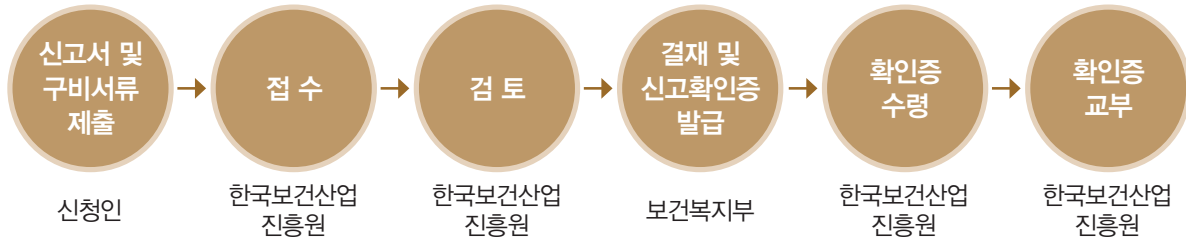
### 〈 신고제 제출 서류 〉

개설주체	법 인	개 인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②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①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사본
	③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 (증빙자료가 국문이 아닌 경우 국문 요약서 첨부)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 진출국가에서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사본	②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 (증빙자료가 국문이 아닌 경우 국문 요약서 첨부)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 진출국가에서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사본
	④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③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⑤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④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 2 조사 대상 및 방법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23) 이후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위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91개 프로젝트

### 〈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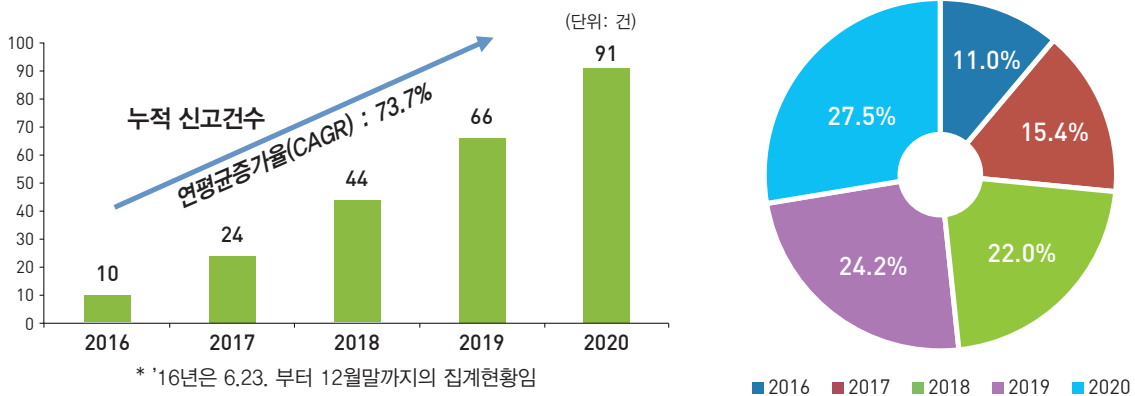


## 3 결과 분석 내용

### 1. 국내 의료기관 신고제 등록 현황

#### ■ 신고제 등록 현황

- '16년 6월 23일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16년 말까지는 10건(11%), '17년 14건(15.4%), '18년 20건(22%), '19년 22건(24.2%), '20년 25건(27.5%)으로 총 91건의 프로젝트가 접수되었음
- 신고 대상자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진출 사업 건에 대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후, 검토 확인을 통해 최종 신고확인증이 발급된 건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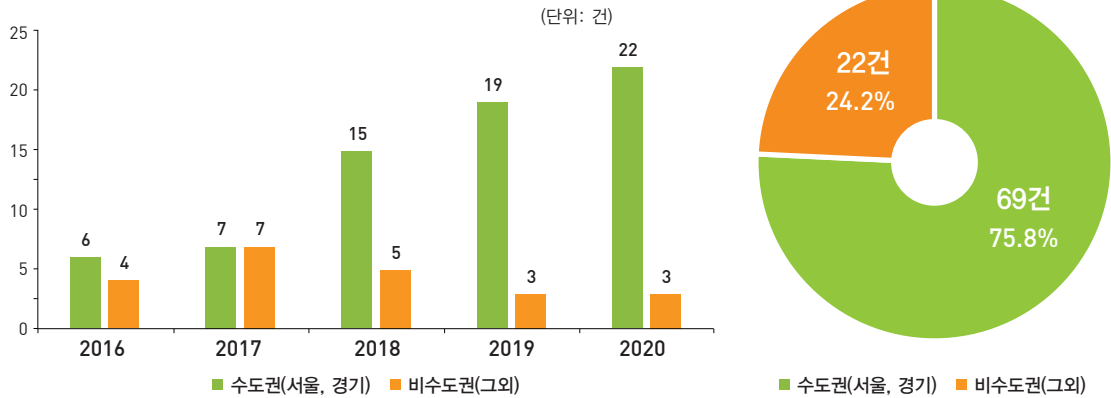


〈 그림 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신고 현황 〉

#### ■ 지역별 의료기관 등록 현황

- (수도권/비수도권)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수도권(서울, 경기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 등록된 건수는 69건(75.8%),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등록된 건수는 22건(24.2%)으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등록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 의료 해외진출 건수는 22건(88%), 비수도권 소재 진출 건수는 3건(12%)으로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건수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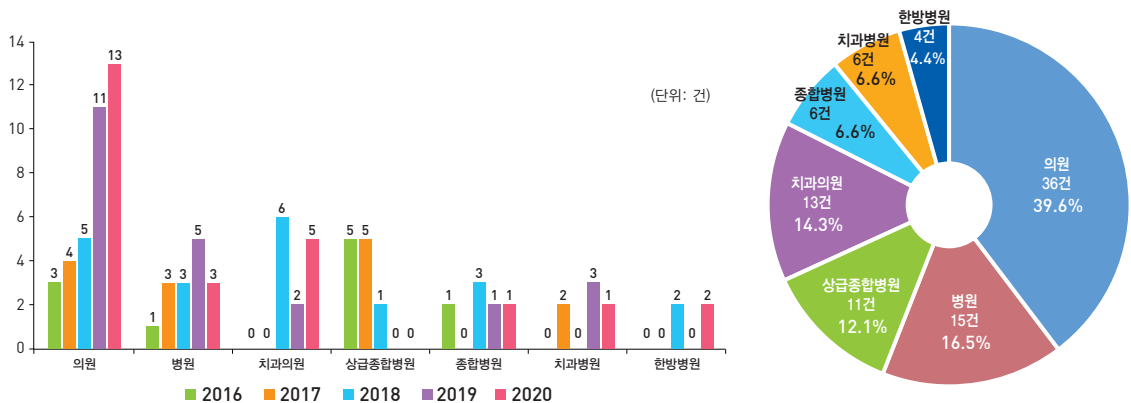
-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에 비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진출 신고건수는 '16년 6건(6.6%), '17년 7건(7.7%), '18년 15건(16.5%), '19년 19건(20.9%), '20년 22건(24.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림 2. 수도권/비수도권 신고 현황 >

### ■ 의료기관 종류별 신고 현황

● 91건의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 기관 중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의원이 36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병원이 15건(16.5%), 치과의원 13건(14.3%), 상급종합병원 11건(12.1%), 치과병원 6건(6.6%), 한방병원 4건(4.4%) 100병상(이상)~300병상(이하)의 종합병원 4건(4.4%),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 2건(2.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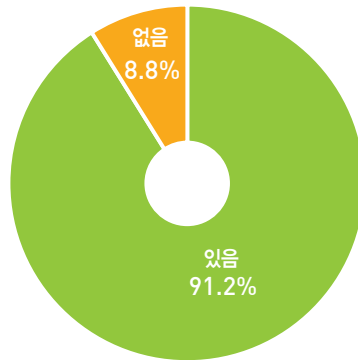


< 그림 3. 의료기관 종별 신고 현황 >

- 최근 3개년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18년도에는 치과의원이 6건(30%), 의원 5건(25%), 병원과 종합병원 각 3건(15%), 한방병원 2건(10%), 상급종합병원 1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19년도에는 의원이 11건(50%), 병원 5건(22.7%), 치과병원 3건(13.6%), 치과의원 2건(9.1%), 종합병원 1건(4.5%) 순으로 나타남. '20년도에는 의원 13건(52%), 치과의원 5건(20%), 병원 3건(12%), 한방병원 2건(8%), 치과병원과 종합병원 각 1건(4%) 순으로 의원급 진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 전체 신고된 91개의 의료 해외진출 건수 중,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는 83건(91.2%),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8건(8.8%)으로 진출 신고한 대부분의 프로젝트 추진 신고기관은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음
  -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전담부서 인원은 평균 3.9명으로 최소 1명에서 최대 12명의 전담부서 인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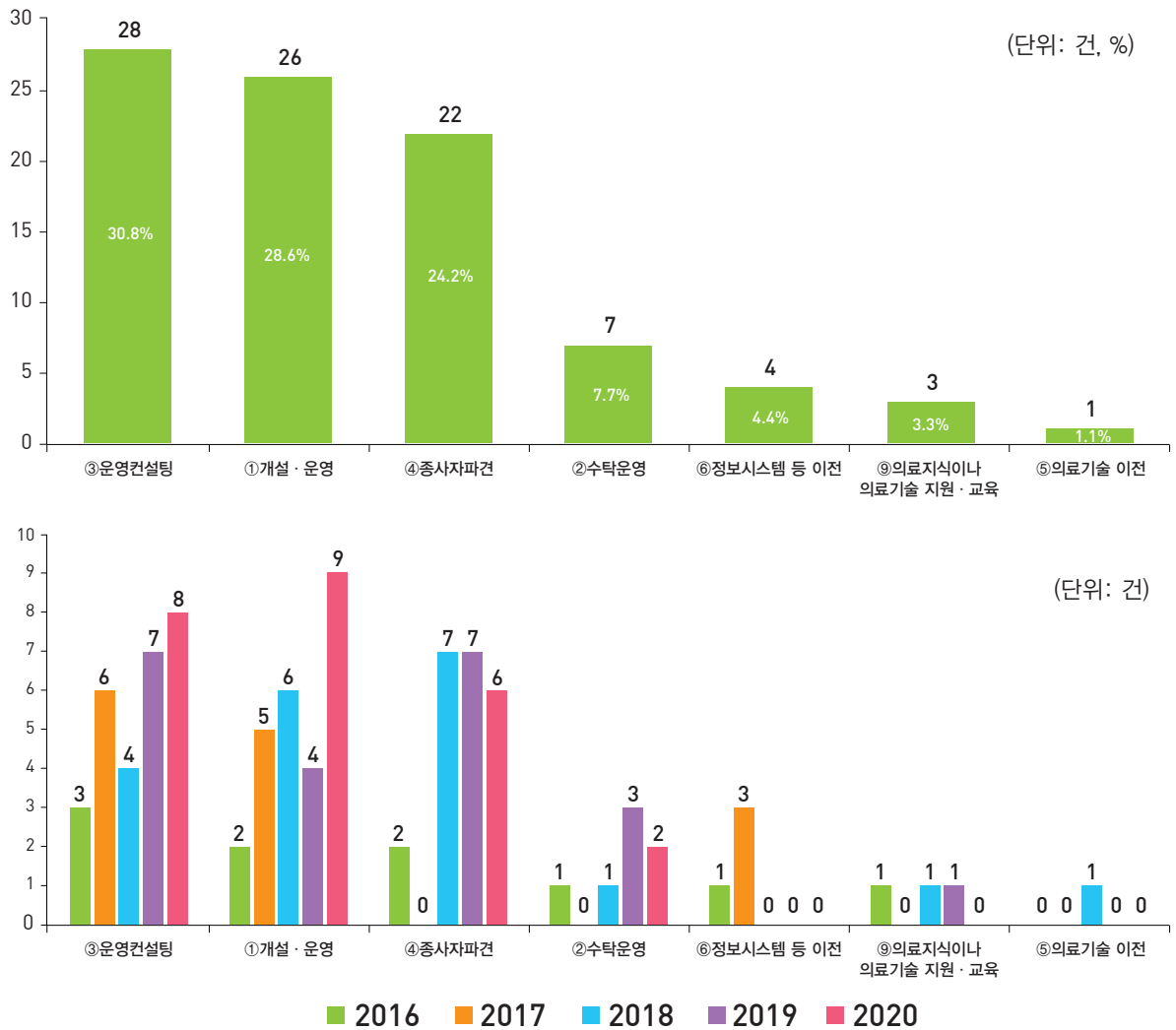
〈 그림 4.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유무 〉

## ■ 진출형태별 신고 현황

- (진출구분) 신고 등록한 전체 해외진출 프로젝트 91건을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제1항에 정의되어있는 9가지 의료 해외진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③운영컨설팅이 28건(3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①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26건(28.6%), ④종사자 파견이 22건(24.2%), ②수탁 운영이 7건(7.7%), ⑥정보시스템 등의 이전의 형태가 4건(4.4%), ⑨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교육하는 행위가 3건(3.3%), ⑤의료기술 이전의 형태가 1건(1.1%) 순으로 나타남

### 〈 의료 해외진출 진출형태 구분 〉

- ①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해외직접투자(단독투자, 합자·합작투자, 인수합병)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 ②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운영 : 국외 의료기관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③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④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⑤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의 이전 : 무형자산(의료기술, 브랜드) 이전의 대가로 로열티를 수령
- ⑥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 등 이전 : 병원정보시스템(HIS) 및 원격의료시스템(CT)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⑦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제공
- ⑧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의 제공
- ⑨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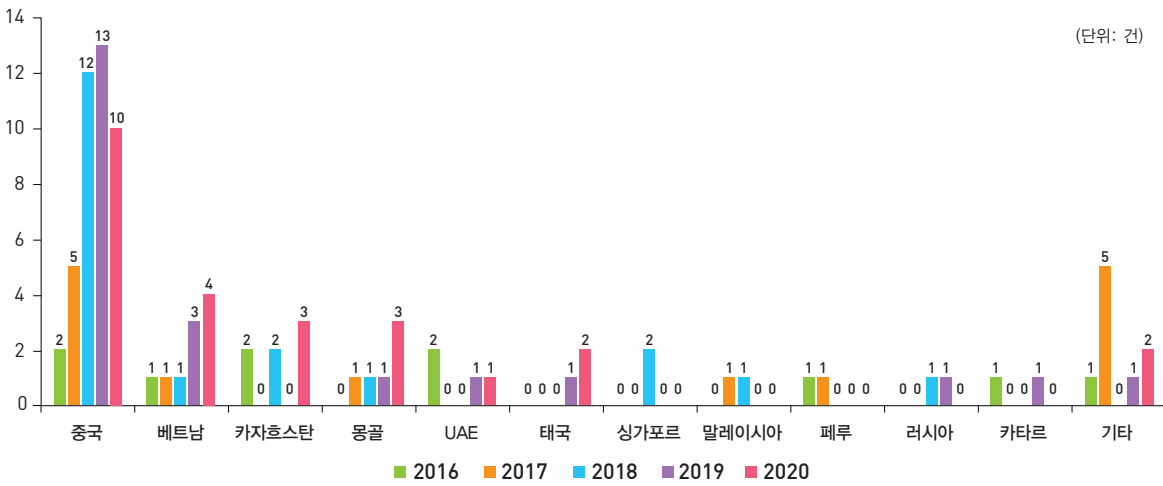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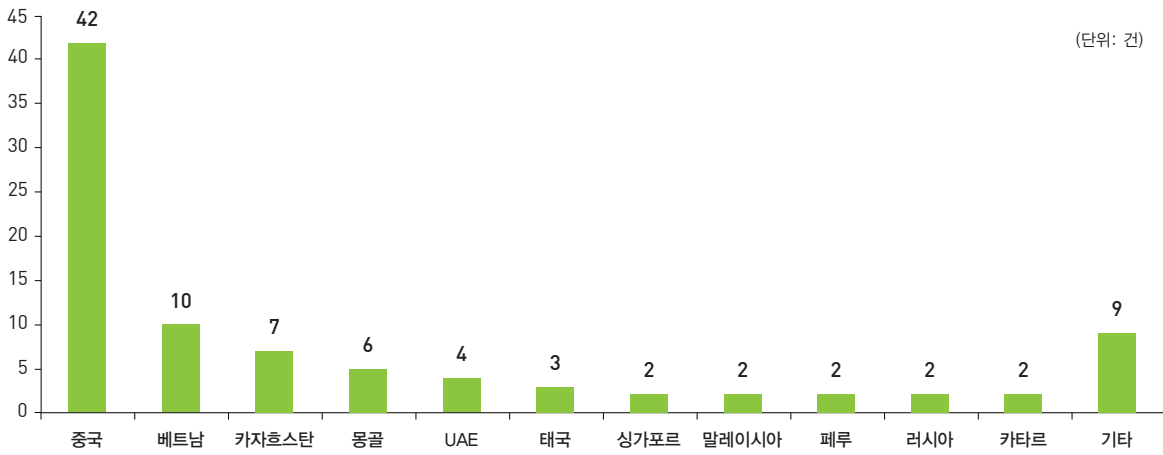


〈 그림 5. 진출형태별 신고 현황 〉

### ■ 신고 국가별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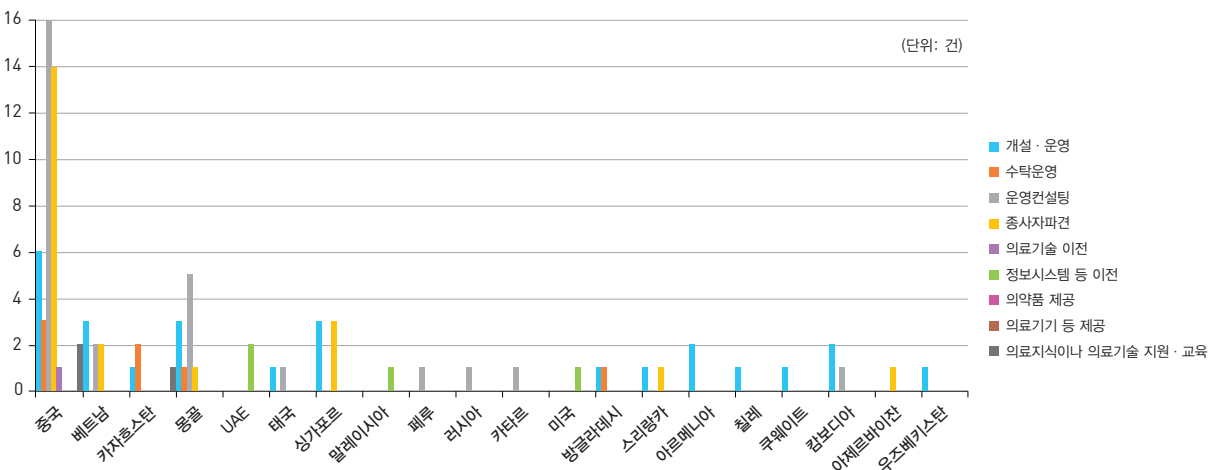
- (신고국가)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91건) 중,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0개국으로 의료 해외진출 국가별 다양한 신고접수 현황을 나타냄

- 그 중 의료 해외진출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국가는 중국 42건(46.2%)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10건(11%), 카자흐스탄 7건(7.7%), 몽골 6건(6.6%), UAE 4건(4.4%), 태국 3건(3.3%) 순이며, 그 외 2건의 의료 해외진출을 기록한 국가는 총 5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페루, 러시아, 카타르), 1건을 기록한 국가는 총 9개국(미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칠레, 쿠웨이트,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으로 나타남



〈 그림 6. 국가별 신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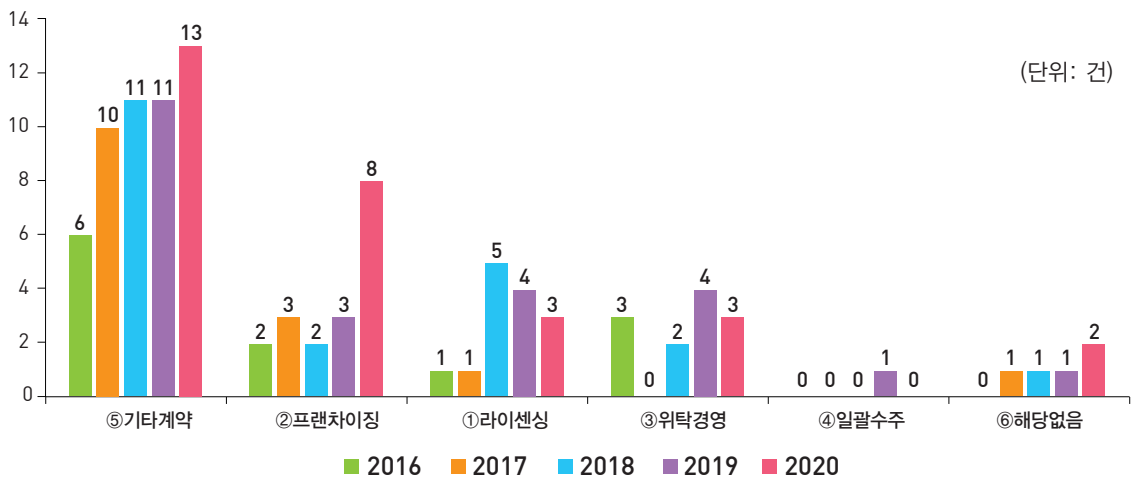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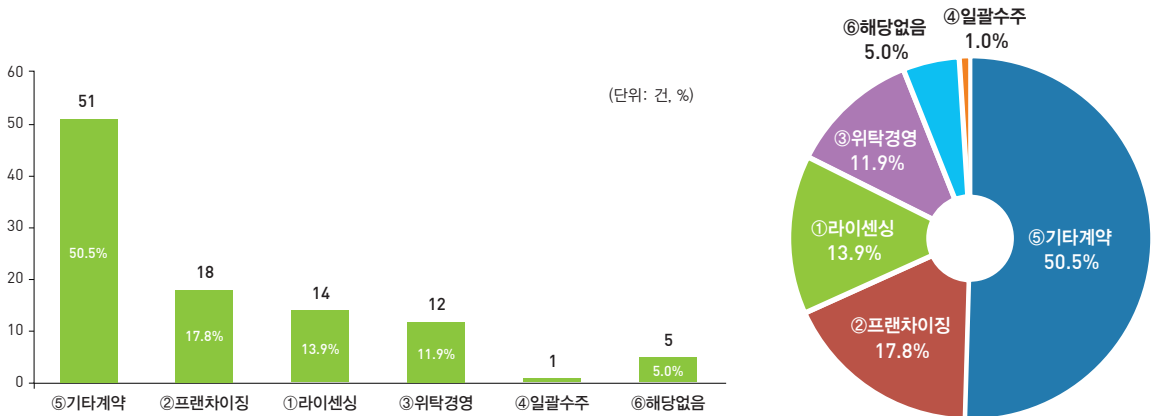
— 국가별 진출형태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운영컨설팅’이 16건, ‘중사자파견’이 1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7. 국가(진출형태)별 신고 현황 〉

### ■ 계약방식별 진출 현황

-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된 91건의 프로젝트 대상, 계약방식(라이선싱, 프랜차이징, 위탁경영, 일괄수주, 기타계약) 형태를 살펴보면 복수선택으로 총 101건이 등록되었음
  - 기타계약의 형태가 51건(50.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징 18건(17.8%), 라이선싱 14건(13.9%), 위탁경영 12건(11.9%) 순으로 나타남



〈 그림 8. 계약방식별 신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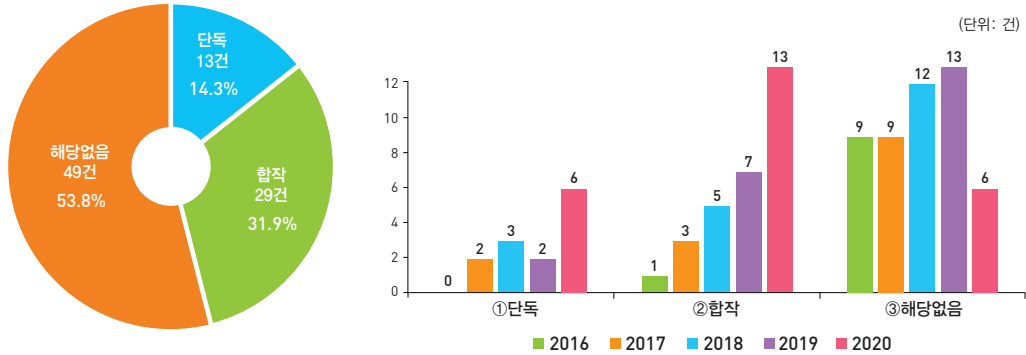
### ■ 의료 해외진출 자본투자

- 의료 해외진출로 신고 등록된 전체 91건 중 49건(53.8%)은 자본투자가 없는 형태로 진출되었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42건(46.2%)의 경우 합작형태의 자본투자는 29건(31.9%), 단독형태의 자본투자는 13건(14.3%)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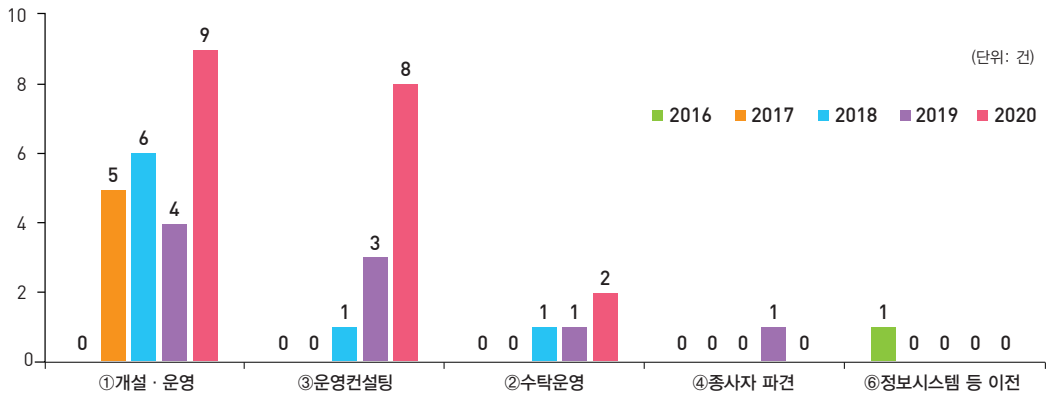




- 자본투자가 동반된 전체 42건의 경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은 24건(57.1%), '운영컨설팅'이 12건(28.6%), '수탁운영'이 4건(9.5%), '종사자 파견'과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이 각 1건(2.4%)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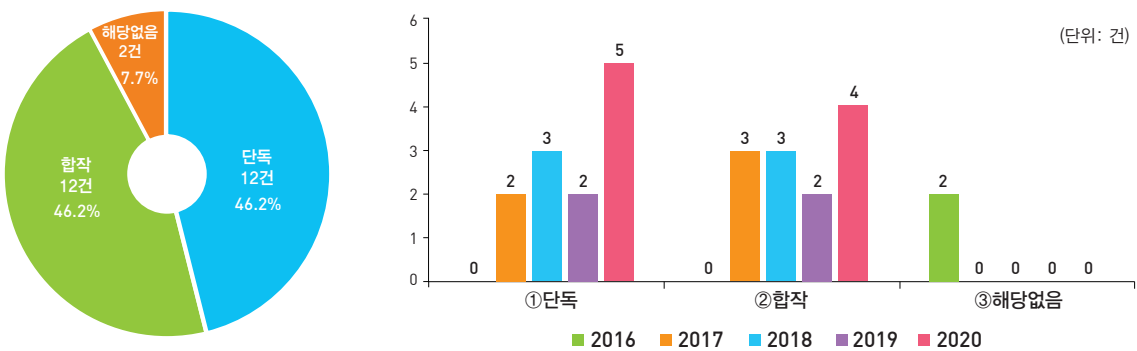


〈 그림 9. 자본투자 형태 〉



〈 그림 10. 자본투자 동반 진출 형태 〉

- 단독 또는 합작형태의 자본이 투자된 프로젝트 비중은 20년 기준 25건 중 19건(76%)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에는 합작투자 12건(46.2%), 단독투자 12건(46.2%) 동일한 비중으로 17년 이후 모든 프로젝트에 자본투자가 동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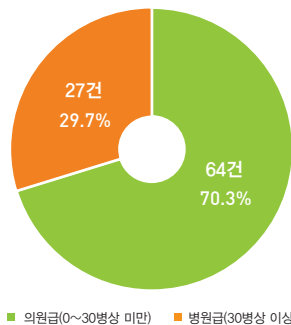
〈 그림 11. 의료기관 개설·운영 자본투자 형태 〉

### ■ 특수목적법인 설립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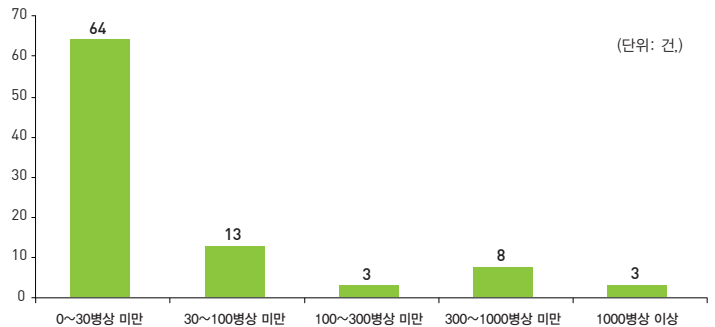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로 신고 등록된 전체 91건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여부’와 관련하여 총 21건(23.1%)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나머지 70건(76.9%)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여부와 관련하여 ‘해당없음’으로 나타남
  -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된 21건 중 17건(81%)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시 특수목적법인을 해외에 설립하여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건(14.3%)은 수탁운영, 1건(4.8%)은 운영컨설팅을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접수됨

### ■ 규모별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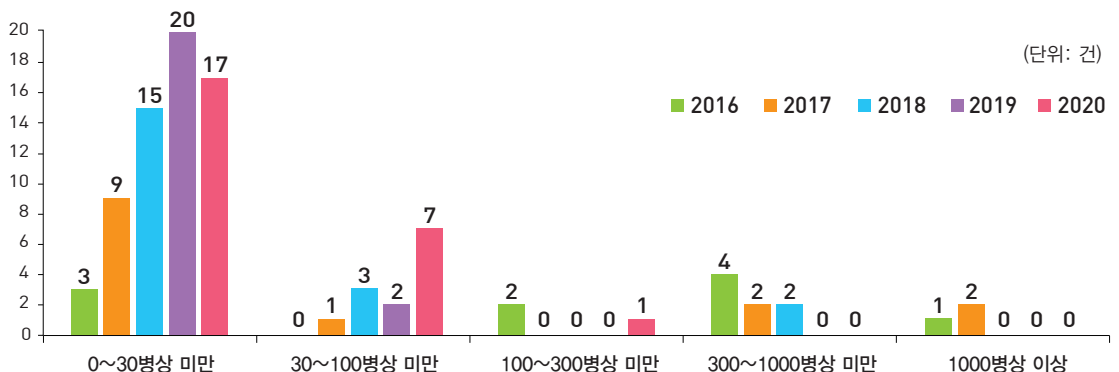
-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 전체 91건 대상, 의료 해외진출 현지 프로젝트의 병원규모 및 병상수를 살펴보면,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 해외진출은 전체 64건(70.3%), 30병상 이상의 병원급은 총 27건(29.7%)으로 나타남
  - 30병상 미만 소규모 형태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병상이 없는 의원급은 46건(71.9%), 소규모 병상이 있는 의원급 진출은 18건(28.1%)으로 나타남
  - 3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은 30병상(이상)~100병상(미만) 규모 13건(48.1%), 100병상(이상)~300병상(미만) 규모 3건(11.1%), 300병상(이상)~1,000병상(미만) 규모 8건(29.6%), 1,000병상 이상 규모는 3건(11.1%)으로, 30병상(이상)~100병상(미만) 규모의 해외진출 신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12. 30병상 미만/30병상 이상 신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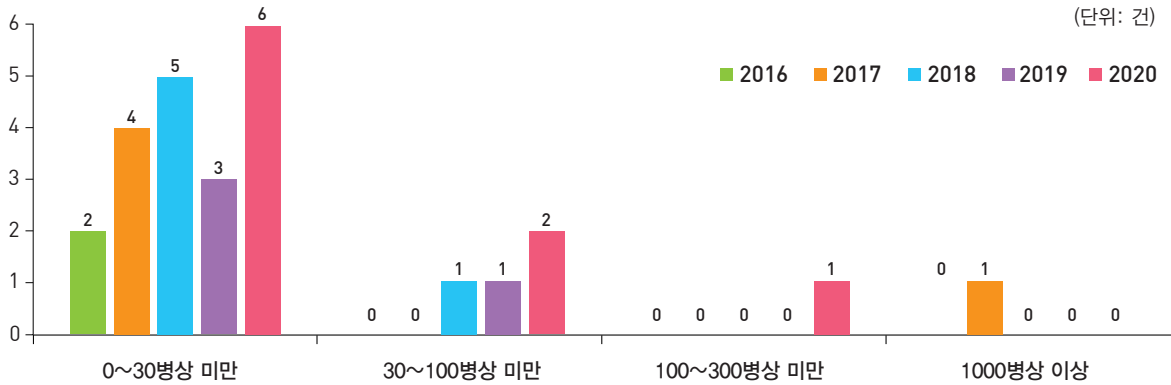
〈 그림 13-1. 병상규모별 신고 현황 〉



〈 그림 13-2. 병상규모(연도)별 신고 현황 〉



- 이 중,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26건)만 살펴보면 현지 개원 병원 규모가 0~30병상 미만인 의원급은 20개(76.9%), 30병상(이상)~100병상(미만) 4개(15.4%), 100병상(이상)~300병상(미만) 1개(3.8%), 1,000병상 이상인 대형 1개(3.8%)로 신고접수 되어, 현지 진출기준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경우 의원급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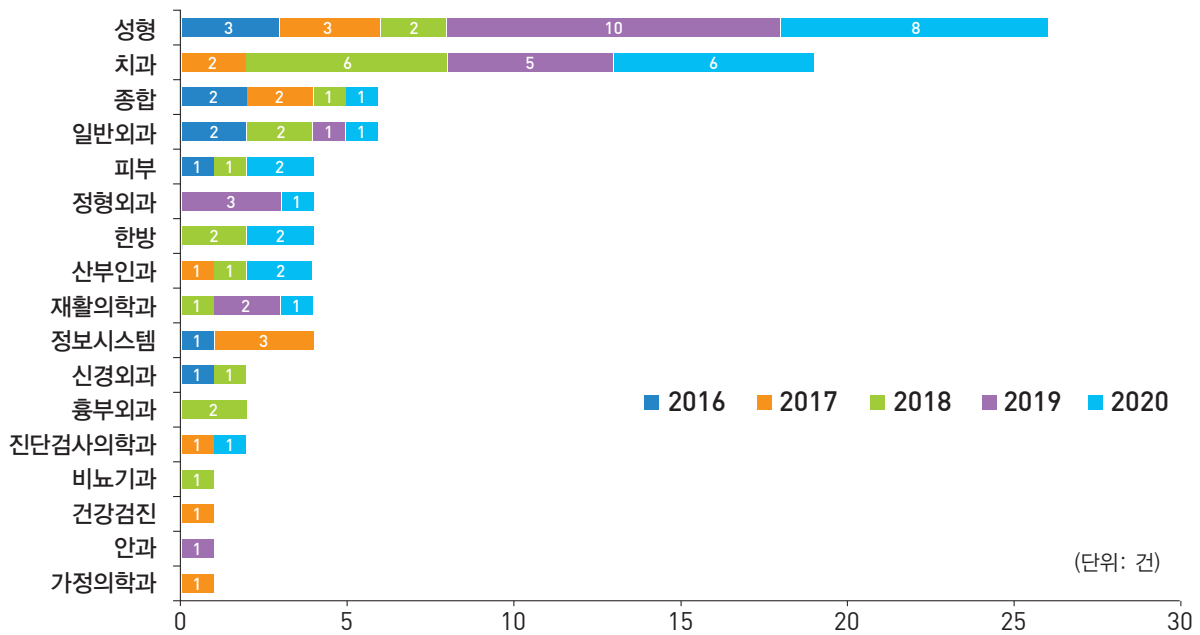


〈 그림 14. 의료기관 개설·운영 병상규모 형태 〉

### ■ 진료과목별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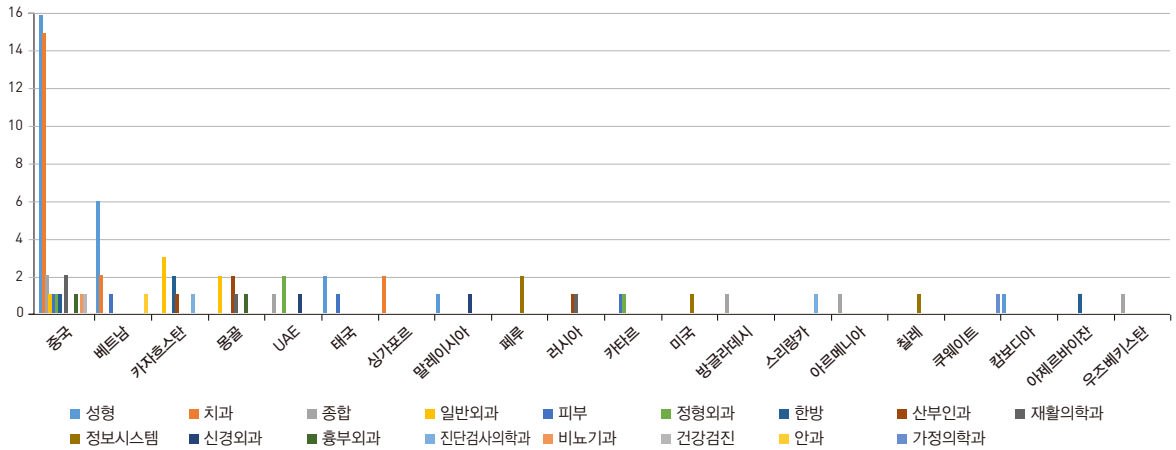
● 진출 진료과목으로 신고 접수된 현황을 살펴보면, 성형이 26건(28.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치과 19건(20.9%), 종합진료와 일반외과가 각 6건(6.6%) 순으로 나타남

- 조사된 16개 진출 진료과목 중에서 성형, 치과 부문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이 고른 진출 양상을 보임



〈 그림 15. 진료과목별 신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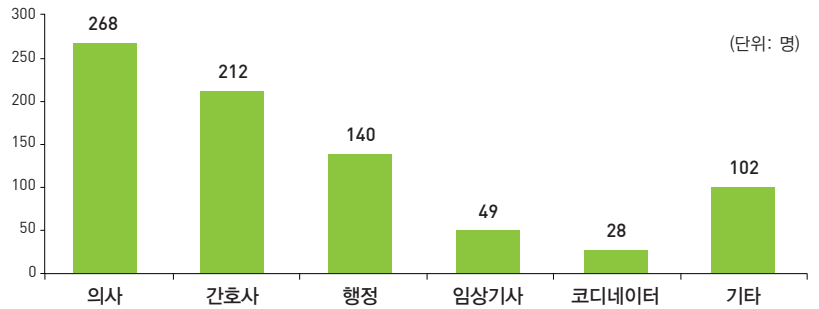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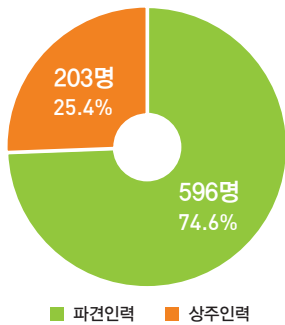
- 국가별로는 전체적으로 진료과목이 다양하게 진출했다고 볼 수 있으나, 중국, 베트남등과 같은 아시아 지역에 성형 진출 비중이 높음



〈 그림 16. 진료과목(국가)별 신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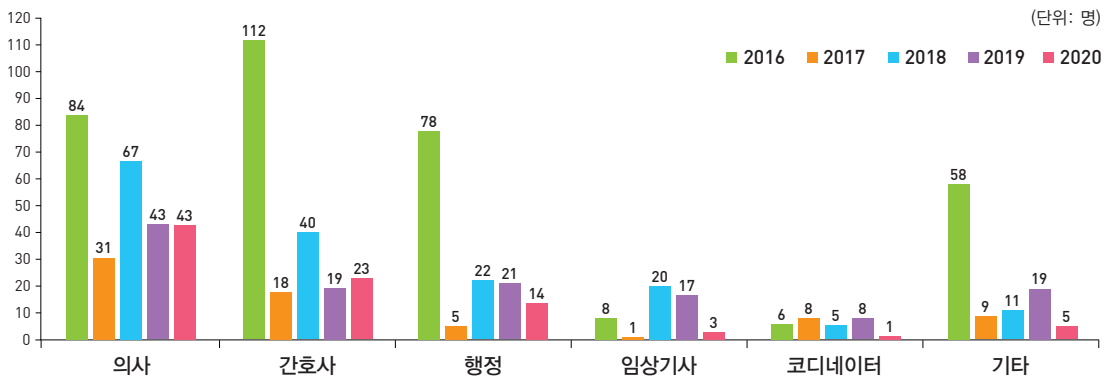
### ■ 의료 해외진출 연계 인력 고용 현황

- 신고 등록된 91개의 프로젝트와 연계된 국내인력 고용 현황은 총 799명으로 파견인력 596명 (74.6%), 상주인력 203명(25.4%)으로 나타남
  - 전체 직군별로 국내인력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가 268명(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 212명(26.5%), 행정인력 140명(17.5%), 기타 102명(12.8%), 임상기사 49명(6.1%), 코디네이터 28명(3.5%) 순으로 나타남



〈 그림 17. 국내인력 채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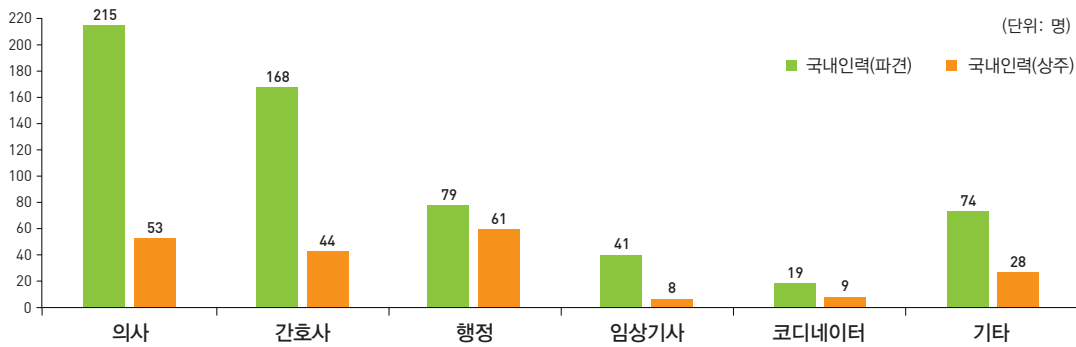
〈 그림 18-1. 직군별 국내인력 채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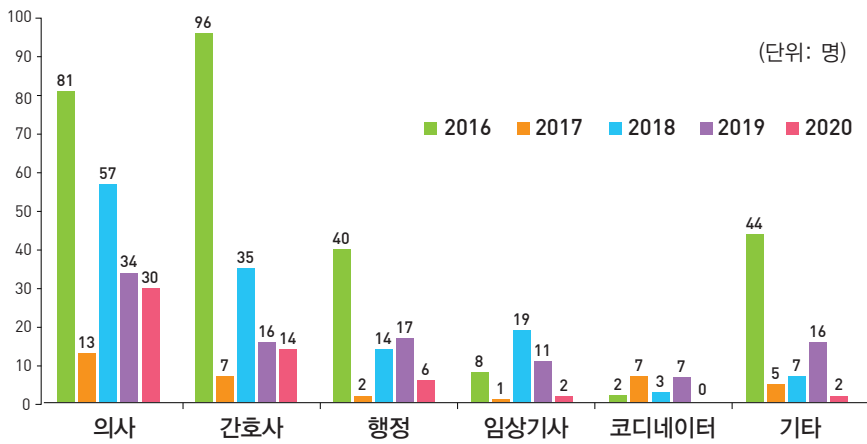
〈 그림 18-2. 직군(연도)별 국내인력 채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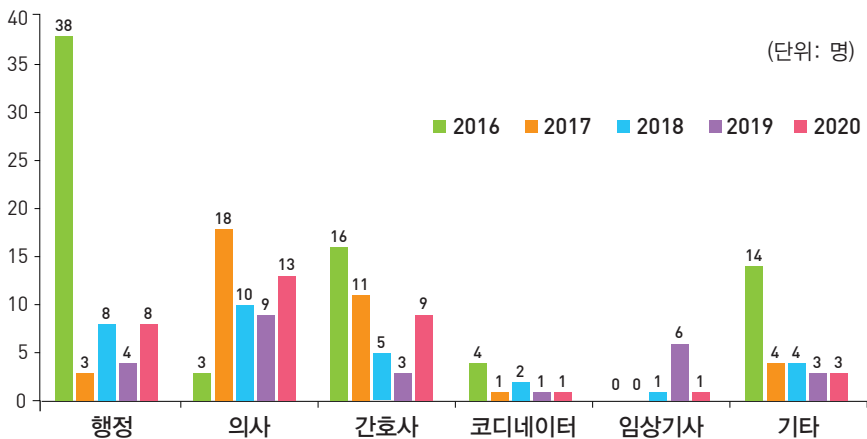
- 국내인력의 파견인원 총 596명 중 직군별로는 의사가 215명(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 168명(28.2%), 행정인력 79명(13.3%) 임상기사 41명(6.9%), 코디네이터 19명(3.2%), 기타 74명(12.4%) 순으로 나타남
- 국내인력의 상주인력으로 채용되는 203명 중 행정인력이 61명(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사 53명(26.1%), 간호사 44명(21.7%), 기타 28명(13.8%), 코디네이터 9명(4.4%), 임상기사 8명(3.9%) 순으로 나타남



〈 그림 19. 직군별 국내 파견/상주 인력 채용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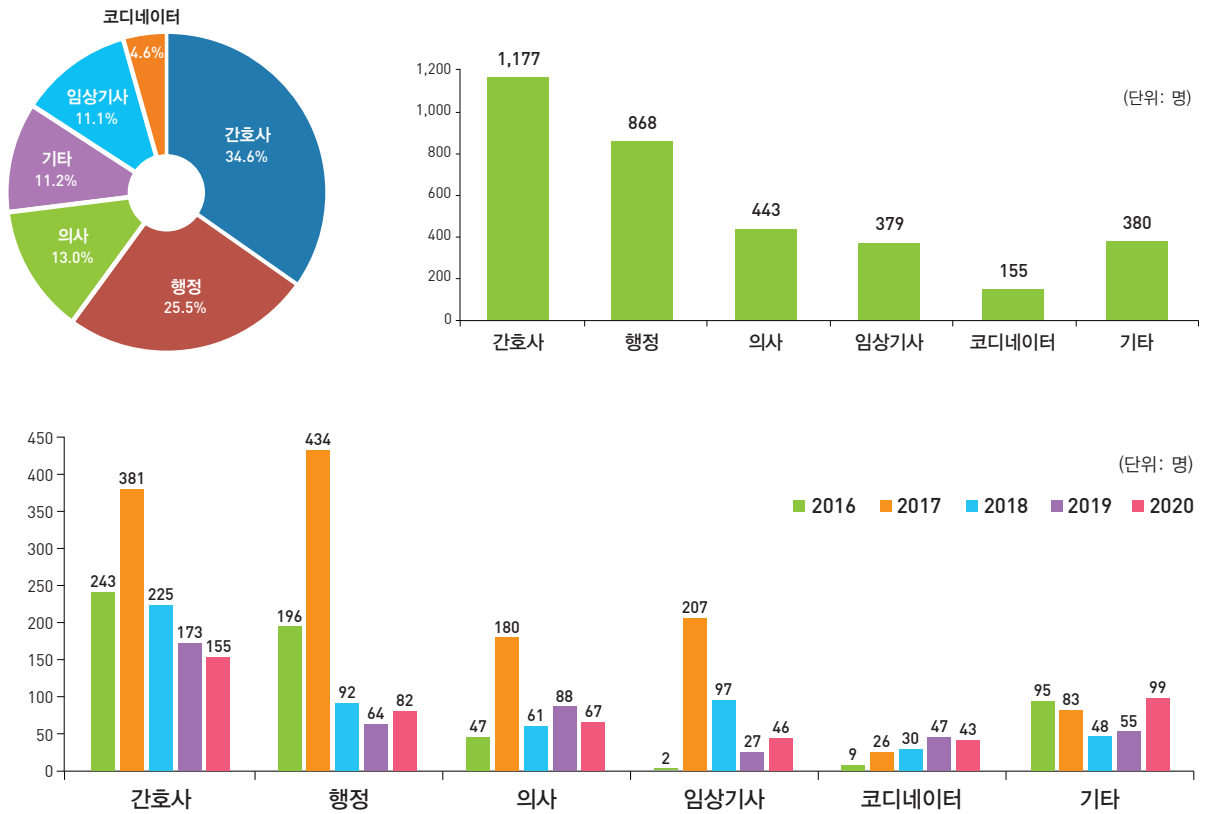


〈 그림 20. 직군별 국내 파견 인력 채용 현황 〉



〈 그림 21. 직군별 국내 상주 인력 채용 현황 〉

- 현지인력으로 채용되는 인력 수는 총 3,402명으로 직군별로는 간호사가 1,177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인력 868명(25.5%), 의사 443명(13%), 기타 380명(11.2%), 임상기사 379명(11.1%), 코디네이터 155명(4.6%)으로 나타남



〈 그림 22. 직군별 현지인력 채용 현황 〉

## 4 요약 및 시사점

### ■ 의료 해외진출 현황 요약

- **(총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이후 연차별 해외진출 신고는 매년 순증하여 총 91건('20.12월 기준) 신고등록
- 시행('16.6.23) 초 10건에서 '20.12월 신고등록 기준으로 의료 해외진출 신고 연평균증가율(CAGR)은 73.7%로 상승함
- 전체 의료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등록이 69건(75.8%), 비수도권 22건(24.2%)으로 수도권 의료 해외진출 건수가 높음
  - 이같은 수치는 국내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현상(70%)보다 다소 높으며, 주요 진출과목인 성형·피부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으로 해석됨
- **(종별 신고현황)** 신고 등록 기관 중 의원이 36건(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15건(16.5%), 치과의원 13건(14.3%)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개년 신고등록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의원의 해외진출이 '18년 5건, '19년 11건, '20년 1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전담부서)** 전체 신고 의료 해외진출 건수 중, 해외진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83건(91.2%)으로 진출 신고한 대부분 의료기관이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음
- **의료 해외진출 신고 현황 및 유형별 요약**
  - **(진출구분)** 신고 등록 전체 프로젝트 중 해외진출 형태별 분석결과 운영컨설팅이 28건(30.8%), 국외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26건(28.6%), 종사자 파견이 22건(24.2%)으로 나타남
  - **(신고국가)** 해외진출 신고건수 중 진출한 국가 수는 총 20개국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42건(46.2%), 베트남 10건(11%), 카자흐스탄 7건(7.7%)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및 동남아·중앙아에 집중 진출하는 양상으로 나타남
  - **(계약방식)** 진출신고 프로젝트 계약방식으로는 기타유형 51건(50.5%)을 제외하고 프랜차이즈, 라이선싱, 위탁 경영 순으로 나타남
  - **(자본투자)** 신규등록 전체대상 중 49건(53.8%)은 자본투자가 없는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자본투자가 동반된 42건(46.2%)의 경우 대부분 합작투자형태의 자본투자 29건(31.9%)으로 나타남
  - **(특수목적법인)**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록건수 총 91건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총 21건(23.1%)이며, 전부 해외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신고)** 해외진출 신고 기관대상 병원규모 및 병상 수는 30병상 미만의 의원급이 전체 64건(70.3%), 30병상 이상 병원급은 총 27건(29.7%)으로 구성
  - **(진료과목)** 진출 신고 기관대상 진료과목으로는 성형이 26건(28.6%)으로 가장 높으며, 치과 19건(20.9%), 종합진료와 일반외과가 각 6건(6.6%)으로 나타남
  - **(인력고용)** 신고 등록된 91개의 프로젝트와 연계된 국내인력 고용 현황은 총 799명으로 파견인력 596명(74.6%), 상주인력 203명(25.4%)으로 나타남

## ■ 의료 해외진출 현황 시사점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16.6.23) 운영 이후 신고 프로젝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년 COVID-19 발생 이후 진단 분야 및 방역 관련 해외진출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의료 해외진출 연평균 증가율의 상승과 진출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고등록 기관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된 분포를 보임에 따라 해외진출 정책홍보, 협력을 통해 전문분야별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방중소병원 발굴 및 지원 필요
- 의료기관 종별 최근 3년 신고현황에서 소규모 의원급(치과의원 포함)의 진출이 활발하며, 이는 국내 중소형 의료기관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타개하기 위함과 관련이 있어 보임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내부 전담조직은 기관의 규모나 진출형태에 상관없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진출전략 및 실행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진출구분에 있어 대부분 운영컨설팅, 종사자 파견, 수탁운영으로 구성되는 점은 의료기관 개설·운영 전 위험요소를 줄임과 동시에 안정적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해석됨
- 신고국가별 구성으로 살펴볼 때 중국과 베트남이 전체 신고대비 약 57%를 차지하여 국내 의료면허가 인정되는 국가에 편중이 심화함을 알 수 있음. 다만 의료기술 및 K-방역 등에 대한 한국 의료에 대한 관심 및 평가 상승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다양한 국가로의 해외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계약방식은 대부분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위탁경영으로 되어 있어 직접투자보다는 금융조달에 대한 부담과 진출국 현지상황 및 문화의 차이 등 위험요소를 줄이고, 초기 금융투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자 함으로 해석됨
- 진료과목별 진출에 있어 성형과 치과가 약 49%를 차지하고 있어 진출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단, 코로나 이후 K-방역 및 원격진료에 대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진료과목별 진출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의 법제화 이후 국내 연관산업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 및 사례 증가를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국내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치과, 한방) 및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은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2035년 치과의사 5,803~6,114명, 한의사 1,343~1,751명이 초과되어 공급과잉으로 추계<sup>1)</sup>되며,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를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
- 해외 상주인력 채용은 행정인력(30%)이 가장 많았으며, 향후 해외진출 프로젝트 투자영역의 확대로 비의료 분야 컨설팅 전문인력(경영, 법무 등) 양성 필요
- 의료산업의 특수성(국가별 상이한 면허제도 등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한 법적규제)을 감안 직접투자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해외 의료 사업 역량강화 등을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 집필자 : 의료해외진출단 정혜원, 박상현, 홍지훈, 홍현정
- 문 의 : 043-713-8577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http://www.khiss.go.kr)

의료해외진출단

Department of Global Healthcare (Outbound)